**제니스와 뱀포드 워치 디파트먼트 콜라보레이션 최초의 부티크 독점 판매 에디션**

**2019년 10월 2일 파리: 조지 뱀포드는 파리 봉마르셰 백화점 제니스 부티크에서 제니스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탄생한 최신 모델을 엄선된 VIP 고개들에게 소개하였다.**

선두를 달리는 시계 주문제작 전문 브랜드 뱀포드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맞춤형 시계를 선보인 최초의 시계 브랜드 제니스는, 뱀포드 워치 디파트먼트와 함께 제니스 부티크에서만 독점적으로 판매될 특별 콜라보레이션 에디션 Chronomaster El Primero Radar(크로노마스터 엘 프리메로 레이더)를 선보였다.

50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발매되는 Chronomaster El Primero Radar(크로노마스터 엘 프리메로 레이더)는 지속적으로 미래를 지향하는 가운데 제니스의 아카이브 피스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어졌다 조지 뱀포드가 제니스 공방을 처음 방문했을 때, 1916년 포켓워치 모델을 발견했는데, 이 모델은 그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었다. 바로 다이얼 전반에 강렬한 레드 액센트를 준 모델로, 레이더 시리즈의 주요 영감원이 되었다. 뱀포드는 그러나 단순히 과거의 모델을 재현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이 디자인 힌트를 활용하여 뚜렷하게 복고-미래지향적 미학을 가진 Chronomaster El Primero(크로노마스터 엘 프리메로)를 창조하였다.

레이더 모델은 제니스의 시그니처 크로노그래프인 Chronomaster El Primero(크로노마스터 엘 프리메로)를 놀라울 정도로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한 버전으로, 핵심적인 요소들은 유지하는 가운데 새로운 디자인 코드를 도입해 주었다. 우선 크라운과 푸셔를 포함하여, 스테인레스 스틸 부품들을 전체적으로 무광택 처리해 주었다. 대형 카운터들이 배치된 엘 프리메로의 3 컴팩스 다이얼에는 몇 가지 독보적인 트위스트를 주었다. 우선, 다이얼을 번트 브라운 톤으로 표현한 후 가장자리로 갈수록 어두운 컬러가 되도록 디자인함으로써, 놀라운 시각적 효과를 창출했다. 가장자리의 화이트 타키미터 스케일은 강렬한 대조미를 선사하는 가운데, 역사적인 엘 프리메로 시계 다수에 등장한 방사형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다.

크로노그래프 서브 다이얼 3개는 각각 다른 디자인으로, 이 콜라보 시리즈의 유니크함을 더 한층 강조하고 있다. 왼쪽에 배치된 소형 초침 다이얼은 조지 뱀포드가 좋아하는 제니스 시계들을 연상시키는 동심원 디자인이다. 6시 방향의 크로노그래프 시간 합산 다이얼은 보다 전통적인 크로노마스터 디자인이다. 그리고 3시 방향의 분침 카운터는 야간에도 빛나는 수퍼-루미노바 코팅의 대담한 레드 기록기로 구성되어, 레이더라는 이름에 걸맞은 “나이트 비전” 효과를 창출하였다. 조지 뱀포드의 말을 들어보자. “서브다이얼 안의 짧은 선들은 별에 결여된 요소들인, 별의 네거티브를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가운데 별이 자리잡고 있는 느낌을 주죠. 이 점이 제게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서브다이얼은 제니스의 별을 은연중 연상시키는 패턴을 창조하였다.

Chronomaster El Primero(크로노마스터 엘 프리메로)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마지막 터치이자 테마를 더욱 강조해 주는 요소는 바로 겉면에 코듀라 효과를 준 고무로 만든 스트랩이다. 빈티지 필을 지녔으되 현대적인 구조를 지닌 이 스트랩에는 조지 뱀포드가 언제나 고집하는, 레드 컬러 더블 스티치를 해 주었다.

11월부터 제니스 부티크에서만 판매되는 모델이며, 첫 번째 관리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제니스: 스위스 시계공학의 미래**

혁신의 별을 따라 전진하는 제니스는 모든 시계에 독보적인 자체 개발 및 제작 무브먼트를 장착한다. 하나의 덩어리를 깎아서 만든 오실레이터가 탁월한 정확도를 자랑하는 DEFY Inventor(데피 인벤터), 100분의 1초 단위 측정 고주파수 크로노그래프를 장착한 DEFY El Primero 21(데피 엘 프리메로 21) 등이 좋은 예이다. 1865년 창사 이래 제니스는 항공의 초창기에 선보인 “파일럿 워치”와 사상 최초로 양산된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칼리버인 “엘 프리메로”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정확도와 혁신의 개념을 끊임없이 경신해 왔다. 언제나 한 발 앞서 나가는 제니스는 성능의 새로운 기준과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디자인으로 독보적인 전설의 새 장을 쓰고 있다. 제니스는 시간 자체에 도전장을 내고 별을 향해 나아가려 하는 대담한 이들과 함께, 언제나 같은 자리를 지키며 스위스 시계공학의 미래를 만들어 나간다.

CHRONOMASTER EL PRIMERO – RADAR(크로노마스터 엘 프리메로 - 레이더)

**부티크 에디션 -** 50개로 구성된 리미티드 에디션

제품 번호: 03.2082.400/02.R830

**주요 특징**

엘 프리메로 칼리버 400 B: 부품 326개, 스톤 31개, 36,000VpH

엘 프리메로 오토매틱 칼럼-휠 크로노그래프

6시 방향에 날짜표시창

타키미터 스케일

**무브먼트**

엘 프리메로 400 B, 오토매틱

칼리버: 13 ¼```(직경: 30 mm)

무브먼트 두께: 6.6 mm

부품 수: 326

스톤 수: 31

주파수: 36,000VpH(5Hz)

파워 리저브: 50시간 이상

마감: <꼬뜨 드 제네브> 모티브 장식 진동추

**기능**

시침과 분침 중앙 배치

9시 방향에 초침용 작은 다이얼

크로노그래프:

* 중앙에 크로노그래프 바늘
* 6시 방향에 12시간 카운터
* 3시 방향에 30분 카운터

타키미터 스케일

6시 방향에 날짜표시창

**케이스, 다이얼 및 시계바늘**

직경: 42 mm

오프닝 직경: 37.1 mm

두께: 12.75 mm

크리스탈: 양쪽 모두 반사방지 처리를 한 볼록 사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백: 투명 사파이어 크리스탈

소재: 마이크로블라스트 처리 스테인레스 스틸

방수: 10ATM

다이얼: 레드 액센트를 준 번트 브라운 톤 다이얼

시각 표시: 루테늄 도금, 파셋 마감, Super-LumiNova(수퍼-루미노바)® 코팅

시계바늘: 루테늄 도금, 파셋 마감, Super-LumiNova(수퍼-루미노바)® 코팅

**스트랩 및 버클**

<코듀라 효과>를 주고 레드 더블 스티치로 장식한 블랙 고무 스트랩

마이크로블라스트 처리 스테인레스 스틸 트라이플 폴딩 클래스프